



황금 개구리



이강렬
극작가·본지 논설위원

지난 여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위치한 도피안사 3층 석탑(보물 223호) 속에 금빛 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 TV에 방송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때문에 평소 인적이 드물던 작은 사찰에 매일 관광객이 들어올 정도로 붐볐던 적이 있다.

얼마 전 필자가 방문했을 때도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는 온 듯한 신도들이 탑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혹이나 하는 설렘과 기대가 섞인 그들의 표정에서 기층신앙이 안고 있는 불교 문화와 신화의 아름다움을 보는 듯했다. 몸길이 1cm 크기의 아주 작은 몸짓으로 그토록 많은 불심을 확인시켜준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이곳에 거주하는 장원 스님은 "6년 전 석탑에 연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 뒤 찾아가 보니 금빛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신비로움이란 현상과 비현상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인식의 시험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그 너머에 있는 위안을 안겨주면 그것으로 심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고대 이래로 우리는 자연현상에 크게 의존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농경사회를 거쳐 지나오게 됨에 따라 자연에 대한 의지와 공포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화와 종교적 믿음이 탄생했던 것이다.

신라 경문왕 5년(865년)에 만들어진 석탑에서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대웅전 안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 16마리의 금빛 개구리에서 계미년 새해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불자 세상보기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복제인간의 탄생 소식이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복제가 인권 파괴, 인간성 파괴, 인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간을 신의 창조라고 믿는 종교인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다. 그들은 생명의 창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생명창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인간복제가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일까? 생명의 창조는 신의 영역이고 인간복제는 인위적인 생명창조일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인간복제가 지닌 문제의 핵심일까?

인간복제나 생명복제는 잘못된 말이다. 인간이나 생명은 복제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다. 생명복제의 과정에

롯된 위험한 장난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생명이란 개체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된, 시공을 초월하여 '연기(緣起)'하는 '하나'이다. 이러한 불교의 연기론적 생명관은 현대의 생태학적 생명관과 일치한다.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생물이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

명은 진화한다. 진화의 과정 가운데 인간은 단성(單性)생식이나 무성(無性)생식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인간복제, 즉 인간이 체세포로 생식 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인간이 단성생식을 버리고 양성생식으로 진화한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동물복제의 경우, 50% 이상이 사산(死産)하

학의 진보가 아니라 진화적 퇴보일 뿐이다.

우리의 존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기원은 40억 년 전부터 계승되어 온 생명의 출현에 있으며, 나아가 우주의 기원과 함께 한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생명의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40억 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의 참여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현재의 생명이며 인간이다. 이러한 조화롭고 안정된 생명과 인간을 조작한다는 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조화가 깨지면 모든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무시하고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생명을 조작하는 일은 개체생명을 살생하는 일보다 훨씬 무서운, 전체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복제, 살인보다 더 무서운 범죄”

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체세포도 기존의 생명체에서 얻고, 난세포도 기존의 암컷에서 얻으며, 그 세포를 키우는 것도 암컷의 자궁이다. 단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일어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생명복제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조작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조작은 생명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서 비

물어 곧 지구의 표면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는 살아있다. 생물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공동체이다. 최대한의 생리학적 범위에서 보면 생명은 지구 표면 그 자체이다"고 주장한다. <화엄경>의 "생명은 온 법계에 충만하다(法界充滿於法界)"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고, 출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기형이 되며, 기형이 아닌 경우에도 수명이 절반 이하가 된다고 한다. 인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부모를 통한 양성생식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식이기 때문에 고등생명은 양성생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런데 체세포에 의한 단성생식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러한 생식법을 실험하려는 것은 과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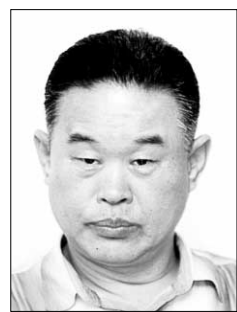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각 종단에서는 중정 신년 법어를 발표한다. 신년 법어뿐 아니라 초파일이나 결제·해제 때도 마찬가지다. 일부 종단에서는 법어를 한글로 풀어써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한문 법어가 대세를 이룬다. 이에 대해 한글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문 법어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법어의 한글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신년법어 한글화

우리 시대 언어로 법어 내야

김재영 법사(동방불교대학 교수)



불교계 신도들을 보니, 올해에도 많은 선지식들이 신년 법어를 발표하고 있다. 중생들을 아끼고 염려하는 그분들의 관심에 경의를 느끼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고귀한

는 보편성 위에 확고히 입각해야 한다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붓다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을 담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붓다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불교는 이미 불교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법어는 우리 시대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체험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문투의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

한문투 문장 해석한다고 문제 해결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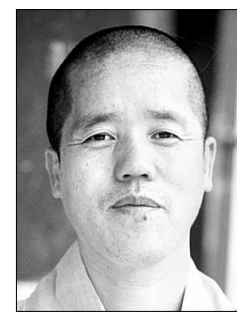
말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초파일·결제, 해제·신년·성도절, 일년에 몇 차례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체험해 오고 있다. 선지식들의 법어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법어란 무엇인가? 붓다를 대신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기류의 감상을 토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법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법어가 붓다·다르마라

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 민중들의 고통과 문제를 통찰하고 그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제적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널리 베풀고 계를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명료하고 평이하면 왜 안 될까? 수백년 전 중국 조사들의 선(禪)거례식으로 모호하게 포장된 것이라면, 대체 그런 법어를 누구더러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

큰스님 메시지 한문이 더 효과적

원철 스님(조계종 중정 예경실장)



큰스님들이 내리는 신년 법어나 초파일 법어, 결제, 해제 법어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글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나름대로 의미 있

이다. 당연히 당신께서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할 경우 한글보다 한문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요즘은 법어를 내리실 때도 한문으로만 하는 경우는 없다. 국한문 혼용체를 쓰거나 한문으로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한글로도 풀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대 바뀌면 해결...인위적 변화 곤란

는 주장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어가 한문 형식을 취해온 것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 선사들을 보더라도 큰스님들이 당신께서 깨친 경지를 단박에 전해주는 데는 한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누가 법어를 내리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법어를 내리시는 큰스님들은 어릴 때부터 한문으로 교육받아온, 한글보다 한자에 더 익숙한 한문세대

물론 일반불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대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한문세대인 지금의 큰스님들에게 한글 법어를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글로 교육받은 지금의 젊은 스님들이 종단의 어른으로 성장해 법어를 내리는 위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자비의 쌀 나누기로 따뜻한 새해맞이



부산에 있는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1월 중순경 사랑의 쌀 600kg(20kg 포대 30포)을 지역 내 저소득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27일에는 다대 지구 임대 아파트에서 형편이 어려운 100가구를 선정, 쌀 전달식도 할 예정이다. 불교계의 자비 실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가 세상살이의 팍팍함을 더하는 요즈음 쌀 몇 포대가 사람들의 가슴을 담고 있다.

장군축마

포교사단 사무국직원 4명 권고사직



지난해 12월 20일, 조계종 포교사단 사무실이 들쭉날쭉했다. 하영태 전 사무국장과 최정심 간사 등 4명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사건은 정책기획실을 신설하면서 인사상의 문제가 집행부와 사무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비롯됐다. 잘못을 떠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직원들을 권고해직함으로써 나름대로 불교계에 기여해 온 인재들을 잃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